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메디슨그룹
Medison Group

www.medisongroup.c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시울코리아 가 함께 응원합니다.

제1393호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북 3차 위성 발사, 러시아 기술지원으로 성공할까

푸틴 위성발사 지원 공언…“기술자문 많이 했을 것”

북한은 지난 1,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3차 정찰위성 발사 계획도 일본 측에 통보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돋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1, 2차 발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할지 주목된다.

북측이 매번 일본 당국에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는 이유는 세계 10개 해역 중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 (NAVAREA XI)의 조정국이 일본이기 때문이다. 회원국은 일본에 해상 사격훈련, 해상 훈련, 선박 침몰, 암초발견과 같은 긴급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북한은 실패로 끝난 1, 2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기간 첫날에 감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상 조건만 갖춰진다면 예고기간 초기에 발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인공위성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다. 각각 지난 5월과 8월 이뤄진 1, 2차 정찰위성 발사는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로 끝났다. 정찰위성을 탑재한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1, 2, 3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다. 군 당국은 1, 2차 발사 때 모두 2단 추진체 비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각 추진체의 낙하 예상 지점을 지난 1, 2차 발사 때와 동일하게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1, 2단 엔진에 대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2차 발사 실패 했다.



북한, 러시아 정찰위성 기술 이전받나(CG)

후 3개월 만에 재발사를 시도하고 발사 궤적이 동일하게 제시된 점을 고려할 때 엔진 자체에 설계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에서 새로운 우주발사체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기존 추진체 엔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적 조언을 줬을 가능성 이 제기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 이전에도 ‘백두산 계열’(80t급 액체연료) 엔진 기반이 러시아로부터 (해킹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왔다”며 “정상회담 후에는 러시아 기술진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국장은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면

이 관계자는 “일부에선 위성체 지원이 야기되는데 과학자들은 (2차 발사 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위성체를

보완하는 것은 제한이 될 것으로 본다”며 “주로 엔진 계통의 지원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춘근 과학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도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러시아에 기술적 지원에 힘입은 바를 것이라며 “엔진을 통째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기술 자문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며, 부품을 제공하거나 시험평가를 대신 해줬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다”며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개발한 로켓이라면 러시아가 북한 과학자들에게 알려줘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고 해도) 러시아의 도움으로 성공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인공위성 궤도에 올리더라도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신 국장은 “위성이 돌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북한이 공개한 위성은 성능이 조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위성 성능보다는 발사에 성공해 (탄도미사일) 기반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체제 선전 목적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찰위성에 장착된 카메라의 해상도가 관건이라면서 “얼마나 정밀하게 위치를 추적해 사진을 찍느냐, 송수신이 가능하냐가 문제”라며 “수신 자료를 분석하고 보정하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상도 3m 이상이라고 해도 함정이나 전차, 트럭 등은 식별할 수 있다”며 북한이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나름의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나서면 서해 등에서 낙하물 인양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5월과 8월에는 일부 인양했고, 8월에는 파편으로 조개져 인양한 것이 없다”며 “자세히 말하기는 제한되나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1m 이상 돼야 하는데 (북한의 위성은) 그 정도에는 한참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5월과 8월 발사 때 (추진체의) 궤도가 다르다”며 “8월 발사 때는 중국으로 일부러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회수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환경단체들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철회하라”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한 환경부를 향해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21개 환경단체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 정부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7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경우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기업을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에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에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한다는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아직 지원방안이 확정되진 않았다.

/ 노승만 기자

원희룡 “국민·당 위해 필요시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회’에 참석, 내년 총선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겠다’는 발언 취지가 무엇이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 서 그는 “정치인의 책임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총선에 출마할 경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저격수’로 나서거나, 당 선거대책 위원장 등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관으로서 주관 업무인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경기 고양시나 대권 도전

직전까지 도지사를 지냈던 제주 지역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 이형욱 기자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 산업은행

한동훈 '총선 등판론'에 들썩이는 여의도…여야 복잡한 셈법



대구 방문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론'이 급부상하면서 여야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대전 법무부 방문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사실상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에선 한 장관 차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선대위 원장 임명과 비례대표 앞 순번 배치, 상정적 지역구 자격 공천 등 '한동훈 사용법'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제가 판단하기엔 적어도 70% 정도로 출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중앙 선대위 공동본부장 등을 해서 최고 격전지 수도권에서의 총선 승리를 겨냥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장관에게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 장관의 등판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당 주류는 한 장관이 뜨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저하될 것이라

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유 의원은 "이 전 대표를 보는 국민 시각과 한 장관을 보는 시각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한 장관이 정치권에 입문해 영향력이 확대되면 반사적으로 그동안 이 전 대표에게 주어졌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한동훈-이준석 연대는 우리 당의 필승 카드다. 한 장관과 이 전 대표는 보완재"라며 "이 전 대표는 2030 남성들의 지지가 강하게 있고, 한 장관은 2030 여성과 기존 전통적인 보수의 지지가 있기에 시너지만 잘 이룬다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한 장관의 총선 등판에 오히려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등판론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

와 한 장관을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장관에 비유하면서 "한 장관이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 생각이 든다. 멋지고 힘 있고 세긴 하지만 과연 서민과 국민들이 사는 모습에서 고통과 고난, 힘든 모습, 월세 전세,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잘못된 국정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한 장관"이라며 "국정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인기가 있다, 사인을 한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최근 비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보다) 청출어람"이라며 "대구를 방문한 것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거의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대변인 같은 활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윤성 기자



질문에 답하는 지드래곤

건보 지역가입자 234만 가구 보험료 ↑ …“소득 등 새로 반영”

평균 2천106원 늘어 인상률은 4년 중 최저…279만 세대는 보험료 내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 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가운데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감소, 증가 세대 수는 각각 최근 4년 중 최고, 최저 수준이다. 신규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9만1천12원)는 2천106원(2.4%) 인상됐는데, 이는 최근 4

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보공단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건강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세법상 토지·건축·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구한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반영으로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보험료의 60%를 경감받는다. 이후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가 감면된다. 또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소득 정산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그 대상으로, 공단이 작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주는 방식이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소득 조정은 근로·사업 소득에 한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조정된다.

이렇게 조정된 건보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 된다. 조정 신청은 소득정산 부과 등으로서 등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 권유희 기자

지드래곤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 결과도 '마약 음성'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 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A씨 진술 외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도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이찬성 기자

한미일 북핵대표 전화 협의…“北 위성발사 중지 강력 요구”

한국·미국·일본 북핵 대표들이 21일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를 계기로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안보리에서의 대응,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연계 등에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앞서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이 기간에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 민정균 기자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합리적이니까 | 믿을 수 있으니까 | 튼튼하니까

분양원가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도 강화

공사 자산공개

백년주택에 삽니다
서울 삽니다



서울시, 전장연 지하철시위 중단 촉구…“시민 발목잡지 말라”

‘장애인 공공일자리 폐지’ 주장에 “왜곡 말라…집회·시위 편중돼 중단”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민 출근길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것과 관련, “자신의 권리를 관찰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근 시간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시민의 ‘실핏줄’과 같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했다”며 출근 방해 시위가 한해에만 76여 회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1~2023년 초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4천4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약 1천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시는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 12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전쟁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하니”라고 했고, 다른 시민은 “지각으로 인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해고당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라고 하소연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집회·시위에 편중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바로잡고 장애인 전체 복지를 높이는 보편적 정책을 늘렸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전장연 면담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을 폐지하며 최종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는 전장연 주장에는 “그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3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3년간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직무 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자의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리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 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

‘행정통합 VS 특별연합’ 부산 총선 이슈 부상…여야 공방

조경태, 통합 특별법안 발의 예정…박완수 경남지사와 회동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접수하는 조경태 위원장

부산 여야 정치권이 부산의 몸집을 어떤 방식으로 키워 더 큰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의 비현실성을 내세우며, 폐지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두 광역단체가 통합해 완전히 하나의 지자체로 합친다는 의미다.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과 경남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행정통합뿐”이라며 “느슨한 지역 연합체로는 인구 감소와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를 먼저 제안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구체적인 행정통합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경남도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당장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통합에 대해 부산시는 경남도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경남과의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단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초광역 경제동맹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행정통합이 불가능해 대안으로 제시됐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국민의힘이 나서서 폐지해놓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 표몰이를 위해 행정통합을 다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특별위원회와 서명운동 본부’ 출범을 알렸다.

시당은 “국민의힘이 파기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복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반대하며, 서울과 수도권을 빼나마지 지역의 메가시티 추진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표만 노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행정통합은 두 광역단체가 완전히 하나의 지자체로 합친다는 의미인데, 두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얹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성이 작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통합 관련 부산과 경남 여론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 5~6월 2차례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행정통합 찬반 견해는 찬성이 35.6%, 반대가 45.6%, 잘 모름이 18.8%로 나타났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를 거쳐 지난해 4월 정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올해 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울산시와 경남도가 입장을 바꾸면서 빠져나갔고, 3개 광역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2월 최종 무산됐다.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0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 송유영 기자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의표 원내대표

홍의표 “희생할 분 나올 것”…이르면 내달 중하순 인적쇄신 시사

더불어민주당 홍의표 원내대표는 21일 “빠르면 12월 중하순, 늦으면 내년 1월 초순부터 민주당 혁신의 시간이 온다”고 이라고 말했다.

또 “당내 통합과 이후 좀 더 열린 자세로 외부의 좋은 분을 영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당 대표 역할이 크겠지만 저도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정인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까지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제1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 혁신의 시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천이 마무리되려면 빨리 내년 2월이고 그 전에 인적쇄신 등이 마무리될 시점”이라며 “정치개혁의 시간이 그렇게 늦다고 생각지 않는다. 국민에게 어필하는 시간은 그때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의 혁신은 통합”이라며 “거대한 정부·여당의 큰 힘에 대항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과 함께 해서 힘을 모으고 어떤 분을 선거 전면에 내세울지는 전

/ 최형민 기자

최강욱 “암컷 설쳐” 발언 논란…민주 “매우 잘못” 엄중 경고

崔, 윤석열 정부 원색 비난…조정식 “국민에게 실망과 큰 상처주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이 최근 한 북콘서트에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책 ‘탈당의 정치’를 펴낸 뒤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과 민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성향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출신이다.

사회를 맡은 박구용 전 남대 철학과 교수가 “이제 겹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라고 하자 최 전 의원은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된 것 아닌가”라며 “공화국이란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교수는 현재



최강욱 전 의원

로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최 전 의원이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그가 몸 담았던 민주당에서 조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애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최 전 의원에게 언행을 조심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 흥자석 기자

이준석 “가해자 따로 있는데 인요한 ‘대리 사과’ 제안에 황당”

“대통령 60세 넘었는데 대리인 필요한가…당사자들이 매듭 풀어야”

문에 “사과를 한다는 것에 대해 큰 기대는 안 한다. 나한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1년 반 동안의 국정 혼란과 당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 사태가 있을 때 당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와서 사과하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중에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대리인이 필요하느냐”며 “이런 사태는 당사자들이 매듭을 풀는 게 중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결국 모든 일은 사필귀정으로 바로잡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무리수를 다시는 두지 않게 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안 하실 거다. 별로 기대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 강서윤 기자

SAMSUNG

Galaxy Z Fold5

The advertisement for the Samsung Galaxy Z Fold5 highlights the phone's foldable screen technology, showing how it can be used as a tablet or a smartphone. The woman in the ad is interacting with the large screen, which displays a landscape scene. The phone is shown in different positions, demonstrating its flexibility and portability. The overall theme is modernity and convenience.

언론노조 KBS본부 “주진우 하차시킨 박민 사장 검찰 고발”

“규범·시스템 파괴하고 공정한 방송 안전장치 무너뜨려”

KBS 박민 사장이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씨를 부당하게 하차시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회사 진보 성향 노동조합이 박 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 본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사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될 예정이다.

KBS 노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박 사장의 임명을 반대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박 사장 취임 후 제작진과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규범과 시스템이 파괴되고 공정한 방송을 위한 안전장치가 치ぢ히 무너지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폭거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 박민 사장 방송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언론노조 KBS 본부는 주씨가 부당하게 하차를 통보받았고 이 과정이 박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박 사장은 이달 12일 임명안이 대통령 실 재가를 받았고 이날 밤 12시 인사 발령을 내렸는데, 아직 임기가 시작하지도 않은 라디오센터장 내정자가 12일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주씨의 하차를 지시했다는 것이 언론노조 KBS 본부의 주장이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담당 PD는 하차 통보가 절차에 맞지 않고 라디오센터장 예정자에게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또 “라디오센터장은 13일 오전 9시에 주씨와 통화하면서 하차를 통보하며 ‘박민 사장의 의지’라고 언급했다”며 부당한 하차 통보가 박 사장의 지시였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방송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는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관련 뉴스 보도를 다시 제작하라고 요구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이 유일하다. 아울러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박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이 지난 13일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편성에서 삭제하고 ‘뉴스 9’ 앵커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개최, 긴급 편성 통지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KBS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편성·제작 책임자는 프로그램 편성·보도·제작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실무자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 백재현 기자



검거된 김길수

검찰,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기소 도주 혐의 계속 수사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6)를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하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돈을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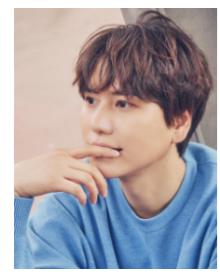
좌이체 해 줄 것처럼 속였다. 그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수사를 받던 김길수는 지난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추가된 도주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도주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뮤지컬 분장실서 흉기난동 30대 여성 체포…슈주 규현 부상



뮤지컬 배우 분장실에 들어온 30대 여성은 배우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아이들 그룹 슈퍼 주니어 출신 뮤지컬 배우 규현이 상처를 입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오후 6시 30분께 3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뮤지컬 공연 배우 분장실에 침입해 규현 등 배우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정신질환 이력과 흉기를 구한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규현은 이날 열린 공연과 같은 작품

‘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부동산업자 구속기소



구속심사 법정 항하는 백현동 민간업자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프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쟁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를 구속한 이후 정 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씨에게 돈이 건너간 경위 등을 조사해 이날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를 통해 실제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은 이어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엔 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 황규현 기자

전장연, 두달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



회(예결위)의 예산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기로 한 바 있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도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며 “예결위 일정이 남아있지만,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회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집회 시작 약 20분 만에 경찰은 해산을 시도했고 전장연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 이희성 기자

aT 가 함께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日, 내년 방류 대비 오염수 이송 시작…“절차 추가로 누출 우려”

日언론 “앞으로 보관탱크서 측정용탱크로 오염수 옮긴 후 방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3차 해양 방류를 마친 가운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4차 방류에 대비해 오염수를 가설 호스로 이송하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종료한 3차 방류까지는 측정용 탱크에 있던 오염수를 바로 해양에 보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보관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측정용 탱크로 옮긴 뒤 바다로 방류하게 된다. 도쿄전력은 다음 방류를 위해 이달 6일 보관탱크 두 곳에 있는 오염수 약 7천 800t(톤)을 측정용 탱크로 보내는 작업을 개시했다.

도쿄전력은 이 작업이 연내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염수 이송에 사용되는 가설 호스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길이 10m가량의 내암 비닐 호스 여러 개를 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설비

결해 제작됐으며, 이 호스 바깥쪽을 또 다른 호스로 둘러싼 이중 구조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있는 보관탱크 두 곳과 측정용 탱크 간 거리는 각각 150m, 90m 정도다.

도쿄전력은 감시 인력 4명을 배치해 30

분 간격으로 호스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야간에는 오염수 이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쿄신문은 측정용 탱크에서 1km 넘게 떨어진 오염수 보관탱크도 있어서 이송 과정에서 오염수가 누출할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쿄전력이 가설 호스를 이용한 이송 구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배관 활용과 새로운 배관 설치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랫동안 방류가 지속되면 가설 호스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도쿄전력이 1~3차 방류를 통해 탱크 20기분에 해당하는 2만t의 오염수를 줄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은 4차 방류까지 탱크 10기분의 오염수를 감축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대폭 상회했다”며 오염수 방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오염수 양이 예상 보다 적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달 16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오염수 132만5천t이 보관돼 있다.

/ 장희재 기자

달러, ‘금리인상 끝’ 전망에 약세

달러지수, 약 3개월새 최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9월 초 이후 약 3개월 사이 최저치로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주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 개시 시기에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달러화를 다른 6개 주요 통화와 비교하는 달러지수는 이날 103.37을 기록하면서 지난 9월 1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달러지수는 지난주 약 2% 하락했고, 이는 주간으로는 지난 7월 중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 지표에 따르면 경기와 인플

레이션 압력의 둔화가 나타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크게 줄고 있다.

실제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 위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이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최소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을 절반을 넘겼다. 이때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은 57.8%, 동결 가능성은 41.3%다.

FX스트리트닷컴의 수석 애널리스트

인 조지프 트레비사니는 로이터에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쳤다고 확신하지만, 연준은 그렇게 말할 의향이 없다”며 “우리는 모두 이를 알고 있고 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준이 달러보다는 금리를 지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국제시장에서 유로와 엔의 가치는 오르고 있다.

/ 문정숙 기자

해빙기 맞던 중·호주, ‘中 음파탐지기 사건’으로 다시 얼어붙나

中 부인에 호주 야당 비난…호주 정부 ‘뒤늦은 공개’엔 “시진핑과 사진 찍으려 감췄나”



악수하는 중국·호주 정상

해빙 분위기를 보이던 중국과 호주가 중국군 음파탐지기에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21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야당은 최근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중국 군함이 쏜 음파탐지기에 부상한 데 대해 중국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호주 자유당 사이먼 베밍엄 상원의원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사고나 오판의 위험에 처진다는 뜻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확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도 중국 대응에 대해 “선전전”이라며 “우리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14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호주 호위함인 HMAS 투움바호 잠수부들이 작업하던 중 중국군 구축함 닝보호가 쏜 음파탐지기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엔서니 앤버니지 호주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위협하고 비전문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호주 측의 말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 이진숙 기자

테슬라 주주, 이사회에 ‘반유대주의 동조’ 머스크 정직 요구

테슬라의 한 주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최근 반유대주의 동조 글을 문제 삼으며 이사회에 그의 정직을 요구했다고 미 CNN 방송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회사 ‘페스트 아메리칸 트러스트’의 제리 브라크먼 사장은 성명에서 “나는 표현의 자유를 믿지만, 상장 기업의 CEO가 종오를 퍼뜨리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 CEO에게 30~60일간 직을 떠나서 있으면 서 공감 훈련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크먼 사장은 “그의 부와 기술·사업 능력이 그의 발언을 용서하는 구실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그가 지난 악마성을 증폭시켰을 뿐”이라며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에 본사를 둔 퍼스트 아메리칸은 지난 9월 말 기준 테슬라 주식 1만6천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머스크가 보유한 4억1천 100만주(3월 말 기준, 전체 지분의 약 13%)에 비하면 훨씬 적은 지분이다.

/ 박지원 기자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쿄전력이 가설 호스를 이용한 이송 구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 배관 활용과 새로운 배관 설치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랫동안 방류가 지속되면 가설 호스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도쿄전력이 1~3차 방류를 통해 탱크 20기분에 해당하는 2만t의 오염수를 줄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은 4차 방류까지 탱크 10기분의 오염수를 감축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대폭 상회했다”며 오염수 방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오염수 양이 예상 보다 적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달 16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오염수 132만5천t이 보관돼 있다.

/ 장희재 기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 ‘보스’ 여동생, 영부인 역할? 현지매체 “아르헨의 김여정”

하비에르 밀레이(53)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51)가 막후 최고 실세로 떠오르면서 향후 그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타로 역술가로 알려진 카리나가 독신인 밀레이 당선인의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그를 카리나라고 부른다.

밀레이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당선을 확정 짓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엘리베르타도르 호텔 선거캠프에 준비된 단상에 올랐을 때 카리나도 함께 무대 전면에 등장했다. 밀레이 당선인은 당선 일성을 밝히면서 카리나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감사의 표현을 전하기도 했다.

승리의 순간을 함께한 두 사람의 ‘투샷’은 전세계로 타전됐다. 밀레이 당선인은 평소 여동생 카리나를 ‘보스’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극우 계열의 아웃사이더로 불려온 밀레이 당선인은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전 세계 SNS 글을 소개했다. / 안종현 기자

당신의 경험 최고의 경력

삼성생명 GFC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움직여 본 경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 본 경험
위기에 맞서 해쳐나갔던 경험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의 경험으로 답하세요

삼성생명 GFC에 지원하세요

Samsung
Financial Networks

당신의 경험
최고의 경력

삼성생명 GFC에 지원하세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움직여 본 경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 본 경험
위기에 맞서 해쳐나갔던 경험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의 경험으로 답하세요

삼성생명 GFC에 지원하세요

본광고는 임직원채용이 아닌 컨설팅트 모집광고입니다.
준법감사필 23-2320호 (브랜드광고파트, 2023.10.17~2024.10.16)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일상을 플랫폼하다



LG유플러스 4대 플랫폼

초개인화된 맞춤형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_너겟
축구, 야구, 골프 등 모든 스포츠 팬을 위한
놀이 플랫폼_스포키
아이의 배움습관을 키우는 국내 최초 맞춤 교육 서비스,
성장케어 플랫폼_아이들나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AI친구와 실감나게 체험하며 학습하는
Web 3.0 플랫폼_키즈토피아

LG유플러스의 4대 플랫폼이
모두의 일상을 원더풀하게 바꿉니다

 **LG U+**

영수내 총리 “한영, 당연한 동반자”…“韓 기업 34조 신규 투자”

“다우닝가 합의, 투자 추동·무역 신장·우정 구축…양국 우정, 시간의 시험 견딜것”

영국 리시 수내 총리는 한국을 ‘당연한 동반자’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한영 정상 간에 채택될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쌓겠다고 말했다.

수내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총리실이 ‘영국과 한국이 다음 세대를 위해 관계를 재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에 합의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장기적이고 글로벌한 파트너십은 오늘,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의 번영과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양국이 혁신과 신기술 활용,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 지키기에 초점을 맞춰온바, 영국과 한국은 당연한(natural) 동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투자를 추동하고 무역을 신장하는 한편 우정을 구축할 것”이라며 양국의 우정이 “글로벌 안정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며 시간의 시험을 견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긴밀한 관계로 이미 양국 사이에 210억파운드(33조8천억원) 투자가 추동됐다”며 “나는 미래에 적합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도 숙련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나의 공약을 이행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추동할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과 수내 총리가 영국과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인 한국간 관계를 재정립할 주



윤석열 대통령, 한-영국 정상회담

요 장기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다우닝가 합의로 양국 관계가 깊어지고, 기술·국방·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올해 초 싱가포르, 일본과도 비슷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총리실은 무역과 투자가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일 저녁에 총리가 다우닝 가에 한국 주요 투자자들을 초청하고, 22일엔 양국 통상장관들이 업그레이드되고 현대적이며 세계를 선도할 FTA 협상 개시를 위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FTA는 새로운 디지털 무역과 원산지 규정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기존의 복잡한 협정을 간소화하며 세관 절차를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영국 총리실은 설명 했다.

영국 총리실은 양국 교역이 2011년 첫 FTA 타결 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 연 160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한국 기업들이 영국 전국의 재생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

며 210억파운드 이상의 신규 투자와 추가 30억파운드(4조8천억원) 규모 무역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는 1천500개 이상 고도 숙련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며, 다음 주 런던에서 개최되는 정부의 글로벌 투자 서밋에 출발 신호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투자는 양국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뒷받침하고, 세계 재생 에너지 용량을 세배로 늘리는 노력을 이끌 것이다라고 영국 총리실은 기대했다.

영국 총리실은 또 이번 파트너십으로

대규모, 소규모, 첨단 민간 원자로 협력이 가속화하고 에너지 그리드 인프라의 복원력이 강화하며 수소 협력 및 해상풍력 관련 협력 기회가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영국 왕립학회 주도 최대 450만파운드 공동 연구 기금과 함께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와 같은 중요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 더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리실은 방위 협력과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도 국빈 방문의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한국은 역내 범의 지배를 지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승인 하에 영국 선박들과 함께 제재 순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총리실은 밝혔다.

북한은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불법 밀수업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 제 제재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영국 총리실은 언급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간 이번 해양 공동순찰 활동은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첫 양자 대북 제재 집행으로, 향후 미국과 다른 동맹들이 참여하는 다자적 제재 작전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총리실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는 땅속의 일정한 운도를 활용해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으로



서울시, 가락시장에 2030년까지 국내 최대 지열설비 설치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030년까지 1GW 보급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열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가락시장에 국내 최대 규모인 23MW의 지열 설비를 도입해 건물 냉·난방 90% 이상을 지열로 공급한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내년 상반기 중 관리동·채소2동에 7.9MW 규모의 지열 설비를 1단계 준공하고 2~3단계 공사로 2030년 11월 중 채소1동·수산동·과일동에 15.5MW를 추가한다.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열 용량은 총 23.4MW로, 시청사 설치 용량의 5.7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가락시장 건물 냉·난방의 90% 이상을 지열로 공급하고, 특히 경매장 저장·저온시설, 중도매인 점포의 냉·난방은 전량을 지열로 공급한다.

가락시장 내에는 2027년 6월까지 ‘지열 흥보관’을 조성해 흥보 거점으로 활용한다.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열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21일 발표했다.

시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은 2005년

5MW에서 올해 6월 1천52MW로 크게 확대됐으나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은 날씨나 예산, 경제성 부족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는 땅속의 일정한 운도를 활용해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으로

/ 강동주 기자

현대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자동차업계 첫

노동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중처방으로 해결되지 않아”



현대자동차·기아,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된 것은 올해 2월 조선업계, 9월 석유화학업계에 이어 세 번째다.

자동차업계는 다양한 부품·소재를 조립하는 특성 때문에 협력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하며, 협력업체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지급 능력으로 이중구조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의미를 갖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숙련인력 확보·근로조건 개선·기술경쟁력 제고 등 측면에서 협력업체를 돋고, 협력업체는 근로조건·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 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대중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신자윤 기자

LH·GS건설, 인천 검단 입주자에 자체보상금 9천100만원 제시

주거지원비 1억4천만원 무이자대여·이사비 500만원 지급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자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입주민들에게 현금 지원 1억4천500만원, 자체보상금 9천100만원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애초 제시한 보상안보다 금액이 상당히 오른 데다, 붕괴 사고로 재시공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보다 보상 조건이 낫다는 평가여서 입주민과의 합의 가능성에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전날 지하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보상안은 우선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4천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

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으로는 9천100만원이 책정됐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천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또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천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9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전체 현금 지원액이 인상됐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천만원이다.

이대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1억4천만원을 입주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

다. 중도금 대위 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 이자 부담도 해소된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천500만원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1억2천100만원)과 비교해 나은 편이라는 평가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비율,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 화정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다.

LH는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해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원욱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증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기입한 경우, 합계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기입한 경우, 합계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합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 연 0.18%, 3억 이상 : 연 0.15%(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실시필자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퍼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강남 '클럽 마약' 밀수입 조직...검경 공조수사에 일망타진

'고수의 알바' 운반책 모집해 태국서 60만명분 국내 반입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밀수조직과 이들이 불법 반입한 마약을 서울 강남 클럽을 비롯해 전국에 퍼트린 유통조직이 경찰과 검찰의 협력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첩보를 바탕으로 한 일부 조직원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망을 넓혀간 양 수사기관은 유통조직의 우두머리까지 검거하는 등 조직을 거의 뿌리 뽑아내며 일망타진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밀수조직 23명, 유통조직 3명, 매수·투약자 1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은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27명 외에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송치한 5명까지 합하면 검거 인원은 총 32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 중이다.

밀수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말



압수한 마약류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

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 탈퇴 시 보복하는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했다.

경찰과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범죄 근절 계획에 따른 집중 단속 중 이들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

현지 마약 판매 조직에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류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텔레그

램 등에 '고수의 알바 보장' 광고로 운반책을 모집했다.

총책 A(39·미검거)씨와 관리책 B(29·구속)·C(34·구속)씨는 운반책들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수사망을 넓힌 경찰과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가 서울 왕십리에서 활동하는 유통조직에 넘긴 사실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안산지역 선후 배 관계였다. 이들은 태국으로 출국해 총책,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

구체적으로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밀수조직원들과 유통조직원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은 인천공항 세관에 경찰의 체포·압수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 수사를 지원했다.

양 기관은 "마약 범죄 단속과 관련한 각 기관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협력한 덕에 염달할 수 있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마약 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호 기자

유통 총책까지 32명 검거해 20명 구속...범죄단체 활동죄 적용

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kg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30kg은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이다.

유통조직은 밀수조직이 들여온 마약을 넘겨받아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밀수조직과 유통조직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과 검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범죄 근절 계획에 따른 집중 단속 중 이들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 7월 중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밀수조직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안산지역 선후 배 관계였다. 이들은 태국으로 출국해 총책,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

유사망을 넓힌 경찰과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가 서울 왕십리에서 활동하는 유통조직에 넘긴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수십 일 동안 잠복한 끝에 국내 유통조직 총책 D(30·구속)씨를 검거하는 성

과를 올렸다.

젊은 층에서 일명 '케이' 또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유통조직의 손을 거쳐 강남 클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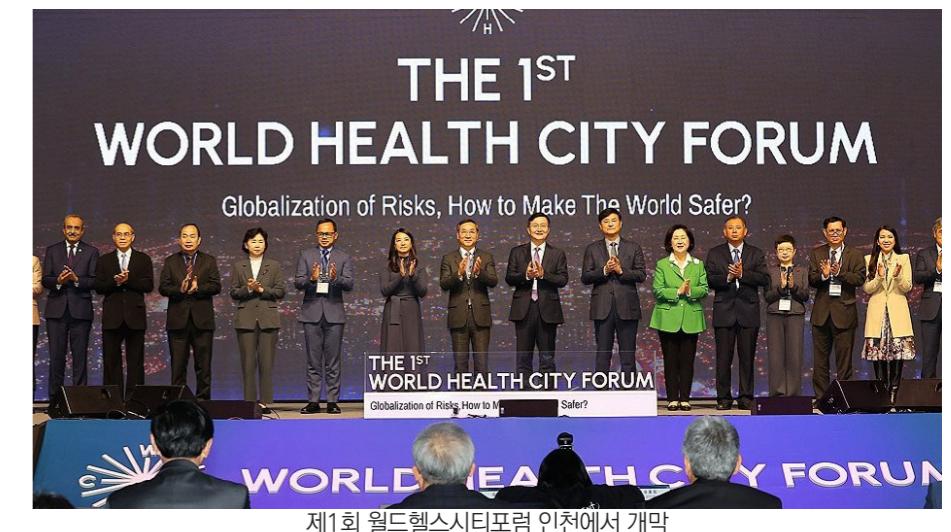
수사망이 좁혀오고 조직원들이 하나둘 검거되자, 이들은 내부 규칙을 갖추고 공동체를 숨겼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계좌명세 분석 등을 통해 밀수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적용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협의회를 열고, 수시로 수사 상황과 자료를 공유하며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등 4개월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밀수조직원들과 유통조직원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은 인천공항 세관에 경찰의 체포·압수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 수사를 지원했다.

양 기관은 "마약 범죄 단속과 관련한 각 기관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협력한 덕에 염달할 수 있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마약 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호 기자



글로벌 위기 대응책은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인천서 개막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이 20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기조연설자로 나서 "새로운 감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하는 '넥스트 팬데믹'의 위험에 대응하려면 전 세계 각국의 보건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회장을 맡은 유 시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녹색기후 기금(GCF) 등을 품은 도시"라며 "인류를 위협하는 팬데믹과 기후 위기 관련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포럼에서는 '위험의 세계화,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스마트 헬스 시티의 비전을 논의한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20여개국에서 모인 전문가와 학자 150여명이 헬스케어·스마트시티·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 권유희 기자

"41년 숙원 풀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마침내 '첫 삽'

하부정류장서 착공식 열려 국무총리·도지사 등 300명 참석



신문지 활용한 환경 훼손 최소화 퍼포먼스

반복하다 41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뚫었다. 다만 아직 시공사 선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공사는 내년 3월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군은 2015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산양 서식지와 애고산대 식물 등 자연 및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실히 조사하고 꼼꼼하게 대책을 수립해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

또 조기 착공을 위해 10개 중앙부처 등과 4개 분야 14개에 걸친 법령 인허가를 동시에 다발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조기 착공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2015년 최초 설계 시 587억원이던 사업비는 물가 상승, 공법 변경, 건축비 상승 등으로 1천172억원(강원도 224억원·양양군 94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도와 군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지방재정만으로 조기 준공해 연간 100억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안전성 등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초 상업 운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색~끌不清 하단부 3.3km 구간을 운행하게 될 오색케이블카는 8인승 곤돌라 53대가 편도 14분 28초를 운행해 시간당 825명을 수송할 예정이다. 도와 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 유발효과 1천369억원, 933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한다.

/ 오종민 기자

경남 여성단체 "여성정책 퇴행우려, 경남도 조직개편 철회해야"



평등 정책,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정책,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라며 "도는 이를 없애고 복지 부서와 통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가족국은 성평등 정책 및 예산, 성주류화 제도 이행과 평가 등 막중한 역할을 한다"며 "개정안에는 여성 및 성인지 관점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예산 등을 복지정책 뒤로 배치됐다"고 덧붙였다.

/ 신재일 기자

이어 "경남도 행정은 성인지 관점으로

& 굿네이버스

Have a Good Neighbors

당신 곁엔 좋은 이웃이 있나요?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세상 모든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인사말

Have a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는 1991년 인도에서 설립되어 국내·북미 및 해외에서 굴지로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이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Have a Good Neighbors
캠페인 자세히 보기 ▶





우리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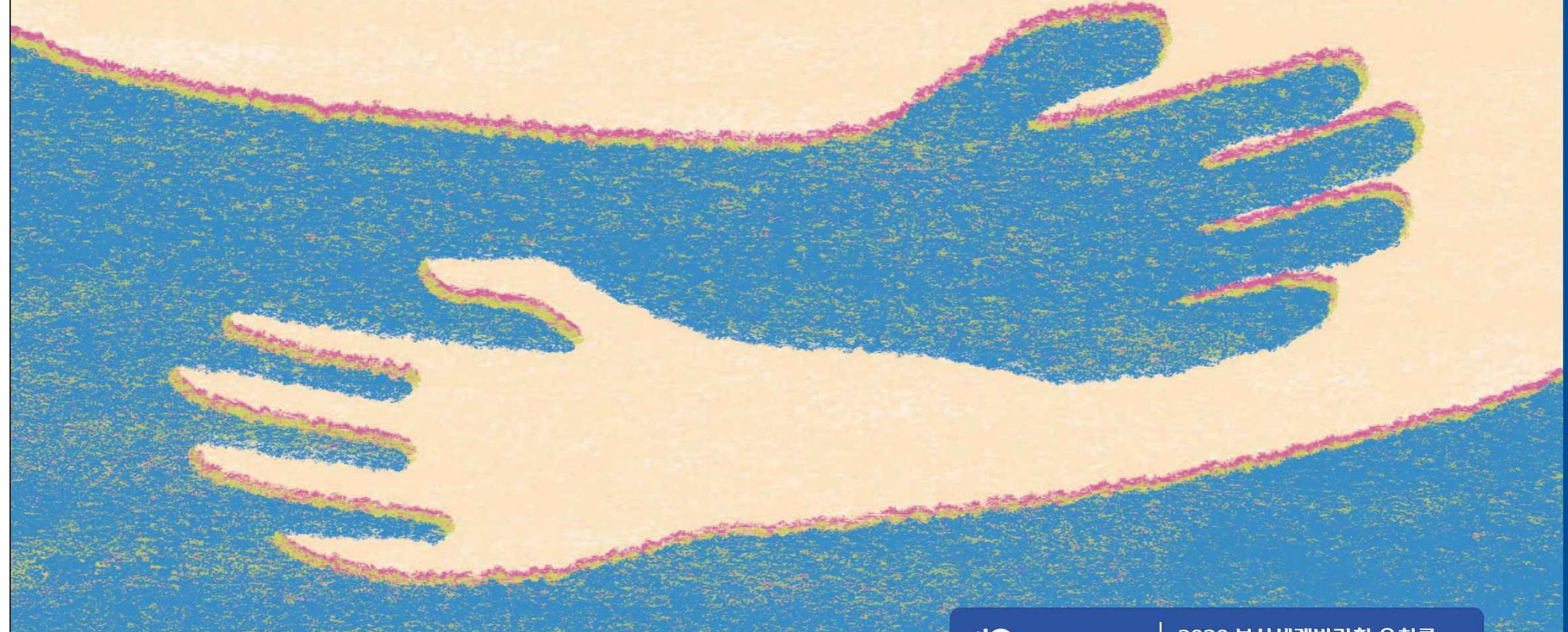
우리라는 울타리

우리금융그룹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드릴 때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와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장님에게는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금융 혜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묵묵히 한 발 더 나아가려는 당신 곁에
언제나 우리금융그룹이 있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구 軍공항 이전 합의각서 체결…“사업 본격 시행 신호탄”

신원식 국방장관·홍준표 대구시장, 합의각서에 서명

국방부와 대구광역시는 20일 대구 소재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양측의 합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합의각서 체결식에는 신원식 국방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해 해당 각서에 서명했다.

합의각서에는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기본 방침 ▲ 기부·양여 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 지자체 관리계획 변경 때 협의 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됐다.

합의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대구시는 2014년 국방부에 최초로 군 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이전 부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



11.20.(월) 장소 |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추진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기부대양여 방식)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립,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국방부와 대구시는 대구 군 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남겨진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제주신화월드, 새해맞이 2024 카운트다운 파티 개최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JSW)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제주신화월드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이틀간 ‘JSW 카운트다운 2024’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신화월드 야외 특설 공연장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레전드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제주 최고의 카운트다운’이란 주제로 대한민국 음악계를 주름

국방부는 이날 합의각서 체결에 대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군은 지역과 군이 함께 발전하는 민군 상생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군공항이전법’ 제정 후 첫 사업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향후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11조5천억원 규모의 군 공항, 공군 부대 등을 이전하는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며, 이를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다.

/ 송원기 기자

잡았던 인기 가수들과 함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30일 첫날 공연에는 애절한 감성의 밸 라드 레전드 휘성,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쓴 걸그룹 레전드 산다라박, 대한민국 1 세대 힙합 레전드 지누션이 출연한다.

31일 공연에는 여성 래퍼의 저력 미란이, 폭발적인 가창력의 올라운더 효린, 감미로운 음색의 소유자 김종국, 힙합그룹 다이나믹 듀오 등이 출연해 2023년 대미를 장식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신화월드 공식 홈페이지(www.shinhwaworl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황지숙 기자



울산쇠부리소리 공연 모습

2023 울산쇠부리민속예술제 개막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도 기원

2023 울산쇠부리민속예술제가 19일

오전 11시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가·지방 무형문화재 단체 간 교류를 통해 전통 문화유산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울산쇠부리소리를 비롯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문경모전들 소리’, 부산의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비지정 무형문화 ‘울산달리농악’ 등 전국 각지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진다.

쇠부리문화 홍보를 위한 쇠부리대장간 복호미 제작, 불매 풍선아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된다.

오후 4시부터는 울산쇠부리소리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기원음악제가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서 이어진다.

기원음악제에서는 국내 유일한 철기 문화 예술인 울산쇠부리소리의 보존·전승 양상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민속예술제는 울산북구문화원 주최·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주관으로, 기원음악제는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주최·주관으로 열린다.

울산쇠부리소리는 옛 울산에서 철을 제련할 때 불렸던 노래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풍철을 기원하는 노동요로 평가받는다.

2019년 12월 울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쇠부리란 ‘쇠를 부리다’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으로, 철을 녹이고 가공하는 제철 작업 전반을 가리킨다.

/ 고영찬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더롭게

Shinhan

“마, 한번 해 보입시다”

세계의 대전환을 이끌어 갈 역동의 도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위대한 항해의 도시 부산에 힘을 모읍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토자증권 신한이파크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자족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인프트테크니스 신한리조트운용 신한AI 신한면세부자 신한디그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항일운동’ 앞장 근우회 목포지회 표지석 제막

전남 목포시의회는 남교소극장(구 목포청년회관)에서 일제강점기 때 조국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근우회 목포지회를 기리는 표지석 제막식을 했다고 밝혔다.

1927년 창립된 근우회는 신간회와 연

대해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그중 목포지회는 항일운동과 함께 여성의 권리 신장 계몽활동 음악회 연극회 등의 활동을 했다.

근우회 목포지회 표지석 설치를 위해

앞장선 최유란 시의원은 “근우회는 신간회와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해 역사적 의미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목포청년회관 야외에 신간회 표지석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근우회 목포지회 활동은 1919년 목포에서 일어난 4·8만세운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목포의 가치 있는 역사적·문화적 관광자원으로도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여성단체협의회·목포여성인권연대가 공동주관한 행사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문자복 목포시의회 의장, 최유란 시의원을 비롯해 목포여성단체협의회, 목포여성인권연대 등 목포 여성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 이호성 기자

54만 김해시 공공의료원 설립 속도 낸다…내년 2월 타당성 도출

인구 54만명인 경남 김해시가 부족한 의료 인프라 보강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낸다.

김해시는 지난 16일 경남도 등과 함께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1차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역 내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공유하고 내년 2월까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은 민선 8기 경남도지사, 김해시장 주요 공약이다.

용역사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김해지역과 비슷한 규모인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제주시 등과 비교 분석한 결과, 김해시가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실 등 특수병상 등이 매우 취약했다고 용역 중간 보고서에 담았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기준 인구 1천 명당 병상수도 0.8병상이며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도 2.1명으로 전주 4.1명, 천안 3.4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응급, 소아, 분만, 산부인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

과의 경우 시간 내 지역 의료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산부인과 이용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비교 지역에 비해 가장 높고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암과 백혈병, 순환계통 질환으로 조사됐다.

/ 김유정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이 작은 꿀벌이 제 전부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선인양봉종봉원 박혁진 대표 (23세)

이 작은 친구와 함께하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꿀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도 꽃송이를 오가며 꿀을 모으는
꿀벌들을 보면서 성실함의 가치도 배웠고요

더 열심히 이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줘야겠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처음엔 도전이었던 이 꿀벌이
이젠 제 전부이자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두번째 이야기 ☺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 금융그룹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노리는 황선홍호, 양리의 프랑스 완파

친선전서 3-0 완승…‘환상 프리킥’ 정상빈 멀티골·홍윤상도 골 맛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티에리 앙리 감독이 지휘한 프랑스 U-21 대표팀에 세 골 차 완승을 거뒀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U-22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프랑스 르 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프랑스 U-21 팀과 원정 친선전에서 3-0으로 이겼다.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에서 뛰는 정상빈(미네소타)이 멀티골을 푹발하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고, 홍윤상(포항)도 한 골을 추가했다.

황 감독은 안재준(부천)을 원톱으로 두고, 양 측면에 엄지성(광주)과 전병관(대전)을 출격시켜 공격진을 짰다.

여기에 강성진(서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해 이들을 지원하게 했으나, 전반에는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병관과 교체해 그라운드를 밟은 정상빈이 투입 25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정상빈

황윤상이 프리킥 기회를 얻어내자, 직접 키커로 나선 정상빈은 페널티아크 뒤편에서 오른발로 강하게 감아쳤다.

정상빈의 발을 떠난 공은 그림 같은 궤적을 그리며 수비벽을 넘어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찔렀다. 기세가 오른 정상빈은 9분 후에도 집중력을 발휘해 멀티골을 완성했다.

3-0을 만들었다. 이번 프랑스 원정은 내년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대회인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림픽 최다 연속 출전’ 세계 기록(9회)을 보유한 한국 축구는 파리 올림픽을 통해 10회 연속 대회 본선행을 노린다.

황 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올림픽 대표팀의 당면 과제는 내년 4월 AFC U-23 월드컵에서 3위 안에 들어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내는 것이다.

앞서 황선홍호 올림픽 대표팀은 지난 18일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르아브르 AC와 친선전에서는 득점 없이 비겼다.

‘레전드 골잡이’ 출신으로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을 이끄는 양리 감독은 마티스 텔(바이에른 뮌헨), 브래들리 바트콜라(파리 생제르맹) 등 유수의 명문 구단에서 뛰는 유망주를 출전시켰으나 쓴맛을 봤다.

/ 최준용 기자



인사하는 ‘골든글러브’ 김하성

김하성 트레이드설에 “출전 가능하면 OK…그래도 난 샌디에이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골드 글러브 수상에 빛나는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내년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내야수 최대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2021년 OPS(출루율+장타율) 0.622에서 지난해 0.708, 올해 0.749로 점차 끌어올렸다. 올 시즌 김하성의 성적은 타율 0.260, 17홈런, 38도루, 60타점, 84득점으로 빅

세계선수권 출전하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 21일 프랑스로 출국



할 예정이다.

26회째인 올해 세계 여자 핸드볼선수권에는 32개 나라가 출전,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다. 각 조 상위 3개국이 결선 리그에 진출하며, 결선 리그에서는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8강에 오르는 방식으로 우승팀을 정한다.

13일부터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그린란드, 오스트리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격차제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서 한국은 1995년 한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다. 직전 대회인 2021년에는 32개국 중 14위에 올랐다.

최근 8강에 든 사례는 2009년 중국 대회 6위다. / 권정석 기자

프로당구 시즌 7차 투어 하이원리조트 챔피언십 22일 개막



프로당구 PBA 일곱 번째 투어가 22일부터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다.

프로당구협회 PBA는 21일 “하이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을 22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PBA 투어 타이틀 스폰서에 참여했던 하이원리조트는 이번 시즌 PBA 팀 리그에 합류해 이충복, 임성균, 응우옌득아인찌엔, 응우옌프엉린(이상 베트남), 뤼피 체네트(튀르키예), 이미래, 용현지 등 스타 군단을 영입했다.

이번 대회는 22일 여자부 LPBA 1차 예선 라운드를 시작으로 23일 2차 예선과 64강전을 치른다. 24일은 남자부 PBA 128강으로 본격적인 대회에 들어간다. LPBA 결승전은 29일 오후 9시 30분에 열리고, PBA 결승전은 30일 오후 9시 30분에 개최된다.

관전 포인트는 이충복의 프로 첫 승 여부다. 이번 시즌 우선 등록으로 프로에 입성한 이충복은 지난 6개 투어에서 아직 우승을 맛보지 못했다. 이충복은 벨기에 출신 강호인 에디 레펜스(SK렌터카)와 128강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여자부에서는 직전 투어 우승자인 최혜미(웰컴저축은행)가 시드를 받아 64강에서 대회를 시작하고, ‘특급 신인’ 권발해와 ‘3쿠션 세계선수권 우승자’ 이신영이 1차 예선 첫판부터 경기를 펼친다. / 신승준 기자

내년 시즌 마치면 MLB에서 FA 자격 취득…대형 계약 노려

샌디에이고 구단과 합의하면 5년 차인 2025년 계약을 1년 연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 김하성의 위상을 고려하면 한 해라도 빨리 FA 시장에 나가는 게 이득이다.

야구계에는 ‘FA 로이드’라는 말이 있다. FA를 앞둔 선수가 이제껏 보여준 평균적인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남기는 현상을 뜻한다. 한 시즌 활약으로 계약 총액의 ‘앞자리 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선수에게 최고의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하지만 김하성은 미국에 진출한 이후 절실히 않 았던 시즌이 없다. 이제는 수비 능력만으로 메이저리그를 험하는 선수가 됐지만, 2024년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김하성은 20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 베라 청담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FA를 맞이하는)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게는 안 중요했던 해가 없었다”면서 “해왔던 대로 준비할 거다. 다

리그 데뷔 이후 최고 성적을 냈다. ‘원래 탄탄한’ 수비에 타격 성적을 올해보다 더 끌어올리면 총액 1억 달러짜리 대형 계약도 꿈만은 아니다.

김하성 역시 “개인적인 목표는 올해보다 좋아지는 내년”이라고 말했다. 내년 김하성이 마주할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시즌을 고스란히 치르고 FA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샌디에이고 구단이 장기 계약으로 연장을 시도할 수도 있다. 샌디에이고가 ‘리빌딩’을 선언하고 높은 가치의 김하성을 트레이드 카드로 쓰는 시나리오도 있다. 올 시즌 내내 이러한 트레이드설에 시달렸던 김하성은 “처음에는 스트레스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하성은 “결국 트레이드가 된다는 건 다른 팀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닌가. 어느 팀이든 뛸 수 있는 출전 시간이 주어진다면 상관없다”면서도 “그래도 저는 샌디에이고가 좋다”고 속내를 밝혔다. / 홍형섭 기자

현대백화점 패밀리 위크

23.11.10 ~ 11.26

THE HYUNDAI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현대백화점 그룹이 함께하는 쇼핑 축제

백화점과 면세점부터 한섬, 리바트, 지누스까지 생활의 모든 순간에 자리하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함께 쇼핑 축제를 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H-Super Pass부터 꼭 갖고 싶은 경품을 모은 래플 이벤트까지, 당신을 위해 각별히 준비한 이벤트와 선물을 지금 확인하세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나물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섬닷컴 | 현대리바트 | 현대L&C | 지누스 | 현대렌탈카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아린아책마술관

자세히 보기



내일 개봉 '서울의 봄' 13만명 예매…韓영화 흥행 불씨 될까

김성수 감독의 신작 '서울의 봄'이 개봉 하루 전날 13만명이 넘는 예매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침체한 한국 영화계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 면 '서울의 봄'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예매율 49.4%, 예매 관객 수 13만3천여 명으로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22일 극장에 걸리는 '서울의 봄'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첫 번째 영화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신군부 세력과 이에 맞서는 사람들의 긴박한 9시간을 그렸다.

황정민이 보안사령관 '전두광' 역을, 정우성이 그를 막으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았다. 이성민은 육군참모 총장 '정상호', 박해준은 9사단장 '노태간' 을 각각 연기했다.



영화 '서울의 봄' 속 한 장면

예매율이 비교적 높은 데다 앞서 열린 언론배급시사회에서 호평이 쏟아졌던 만큼 영화계에서는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한국 대작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하고 외화가 강세를 보였던 터라 '서울의 봄'에 거는 기대는 더 큰 분위기다.

올해 한국 영화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네 편에 불과하고, 극장가 대목으로 꼽히는 추석 연휴에도 흥행작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의 봄' 제작비는 200억여원으로 손익분기점은 약 460만명으로 알려졌다.

영화계는 '서울의 봄'이 관객을 대거 불러들이는 데 성공하면, 다음 달 20일 개봉하는 올해 마지막 한국 대작인 '노량: 죽음의 바다'가 흥행 베단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민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명랑'과 '한산: 용의 출현'을 이은 이순신 3부작 마지막 편이다. 김한민 감독은 자신의 영화보다 한달 앞서 개봉하는 '서울의 봄'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김성수 감독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GV)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이주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팬 쇼케이스

BTS 정국, 팬 2천800명과 쇼케이스 ‘골든’ 전곡 무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20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팬 쇼케이스 '정국 골든 라이브 온 스테이지'(Jung Kook GOLDEN Live On Stage)를 열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21일 밝혔다.

정국은 이 자리에 함께한 팬 2천800여 명 앞에서 솔로 앨범 '골든'(GOLDEN) 수록곡 전곡을 열창했다.

그는 이날 '세븐'(Seven)과 '3D' 같은 히트곡도 들려줬다.

정국은 “‘골든’을 내고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자체가 행복하다.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매번 고맙고 사랑한다. 아미는 내 인생”이라고 팬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또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팀의 리더 RM이 현장에서 정국을 응원했다.

RM은 즉석에서 마이크를 건네받고서 “정말 멋있고 자랑스럽다”며 “마내지만 정국을 보면서 항상 배운다”고 말하며 응원했다.

정국은 약 2시간간 걸쳐 자작곡 '스틸 위드 유'(Still With You)까지 총 12곡을 불렀다. 행사는 글로벌 팬 플랫폼 워버스를 통해 생중계돼 전 세계 224개국의 팬들이 시청했다.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115만9천460명을 기록했다.

/ 황유진 기자

블랙핑크, YG와 ‘그룹 활동’ 재계약 가닥…막판 협의 중



IP(지식재산권)를 지켜내게 된다.

다만 팀 활동이 아닌 멤버 개인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멤버 개개인이 가수 혹은 배우로 성공적인 활동을 펼친 것은 물론, 글로벌 명품

걸그룹 블랙핑크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서 '그룹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블랙핑크 네 멤버는 팀 활동에 대해서는 일단 YG와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막판 협의 중이다. 멤버 제니는 지난 9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피날레 공연에서 “저희를 언제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있

는 블랙핑크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이날 오전 현재 그룹 활동 계약서에 멤버 전원의 날인이 완료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YG는 계약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팀 활동에 대해 재계약에 날인한다면, YG로서는 자사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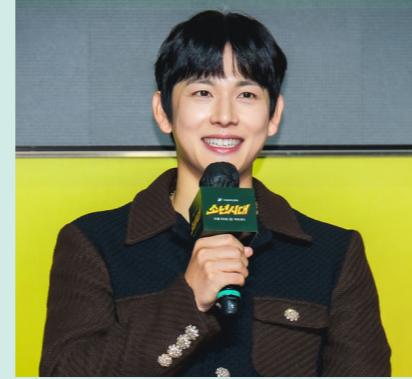
브랜드의 앰버서더(홍보대사)로 활약할 만큼 국제적 인지도가 높기에 네 명의 '눈 높이'를 모두 맞추는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멤버들이 개인으로는 YG를 떠나더라도 다른 유명 그룹들처럼 '따로 또 같이' 방식을 통해 개인 활동과 YG에서의 팀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YG는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블랙핑크는 지난 2016년 8월 8일 더블 타이틀곡 '휘파람'과 '붐바야'로 데뷔했다. 제니, 지수, 로제, 리사 네 멤버는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YG의 새 걸그룹으로 데뷔 와 동시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 강효선 기자



찌질해진 임시완의 ‘소년시대’ “멋있는 척 대신 있는 그대로”

던지고 서슴없이 망가진다.

그는 “이런 캐릭터는 처음이라서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똑똑한 척을 안 해도 돼서 부담감이 덜 했다”며 웃었다.

충청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해 사투리 과외는 물론, 그 시절 유행했던 춤을 몸에 익히기 위해 댄서 효진초이에게 3개월간 특훈을 받기도 했다는 임시완은 “시청자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이명우 감독은 “시와씨는 이번 드라마를 위해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감독으로서 후반 작업 중에는 매의 눈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한 명의 시청자처럼 네를 놓고 보게 된 적이 많았다”며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볍게, 순식간에 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박소희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꿈이 깃든 기술력에 기술보증기금이 희망을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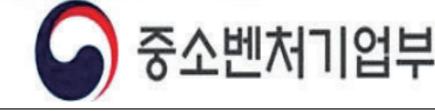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개방형 기술혁신 전담 기관



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을 기보가 지원합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tb.kibo.or.kr>)

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이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결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 은행

나의 은행 이야기

농촌 독거 어르신 밀벗서비스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농촌 지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안부 전화 서비스로 따뜻한 밀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BUSAN, KOREA |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